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7월 14일(금)

..(음력 5월 27일)..

Пятница

14 июля 2023 г.

№ 27 (1204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자원봉사자들, 유즈노사할린스크 신공항 터미널 테스트

자원봉사자 300명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새 공항 터미널 건물을 테스트했다. 이들은 새로운 시설과 서비스를 체험했다. 탑승 수속, 보안 검색, 수하물 위탁 및 수취, 탑승 대기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장애인 전용 객실과 장애인 편의 시설을 체험했다.

신공항 터미널 개관은 올 8월 5일이다.

▲ 유즈노사할린스크 새 공항 터미널에서.

(사진: 주정부 제공)

## 사할린주, 국제 협력에 열려 있어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멕시코, 모로코,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폴란드, 독일, 아랍에미리트, 세르비아에서의 러시아 연방 무역 대표들과 실무 회의를 가졌다. 회의 참가자들은 상호 이익이 되는 상품 공급을 위한 비즈니스 및 무역 관계와 섬 지역 투자 유치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

"오늘날 우리는 비우호적인 국가들로부터 심각한 제재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경제 상황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는 데 강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무역 대표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수출을 조직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투자 유치 및 생산 시설 설립을 위해 일하는 국가와 비즈니스 및 무역 관계를 구축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가 말했다.

며칠 동안 여러 국가의 러시아 무역 대표들은 프리고로드노예 액화천연가스공장(LNG), 코르사코브 항구, '고르니 워즈두흐'스포츠 관공단지, 건설 중인 석유 및 가스, 농업 산업 단지를 방문하고 이 지역의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만남을 가졌다.

"현재 국제 정세는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에미리트 항공은 전 세계, 특히 러시아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섬의 곳곳을 다니며 이 지역의 큰 잠재력을 확인했고, 미래를 위한 토대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협력에 대한 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코르사코브 항구가 허브가 될 북극해 항로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아랍에미리트 주재 러시아 연방 무역 대표인 안드레이 테료힌이 의견을 공유했다.

모로코의 알렉세이 안드레예브 무역 대표는 아프리카 국가도 북극해 항로 개발에 잠재적으로 관심이 있으며 여러 상품, 특히 다양한 과일을 수출 할 준비가 되었으며 사할린에서 아프리카 국가들로 수산물 수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얀마 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도 사할린과의 무역 전망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얀마는 양질의 쌀과 열대 과일을 대량으로 생산한다.

(3면에 계속)

## 유즈노사할린스크, 대규모 우회도로 공사 중

유즈노사할린스크 우회도로의 첫 번째 단계인 8km 구간이 내년 8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 새로운 교통 동맥은 지역 중심지와 연방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도심을 화물 차량들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우회도로 건설은 무엇보다도 교통 연결의 현대화와 개발을 포함하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응집체 개발을 위한 전략 계획의 일부였다.

이번 주 초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도로 건설 공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6월부터 대규모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현재 공사 현장에서는 나무 절단, 진입로, 배수로, 굴착 작업 등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내년 여름 우회 도로가 개통되면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심부는 화물 차량들로부터 벗어나 교통 체증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류 센터는 주요 도로의 교차로에 있는 우회 도로에 설립될 계획입니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말했다. 산업 시설과 창고는 우회도로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도심에 주거 지역과 사회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도시 공간은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새로운 도로는 유즈노사할린스크-홈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코르사코브, 유즈노사할린스크-오하 구간의 연방 고속도로를 연결한다. 수송 동맥의 총 길이는 40킬로미터가 넘을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작업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2026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 단신

### 연해주 의료진, 사할린 주민의 경험을 토대로 실무 도입

연해주의 의료진이 사할린 주민의 경험을 토대로 실무에 도입하였다. 34명으로 구성된 연해주 의료진 대표단(단장 연해주 정부 부총재인 아나스타시야 후드첸코 보건부 장관)이 외래 환자 치료를 조직하는 사할린에서의 의료 경험을 공유하고자 사할린을 방문했다.

며칠 동안 이들은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사할린 주에 도입된 첨단 의료 기술을 익혔다. 6개월 전, 사할린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높은 지표로 극동 지역의 주체들 대상으로 의료 분야의 디지털 프로세스를 조직하는 데 있어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소비자 권리보호감독청,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유치원 4곳 운영 제한

소비자 권리보호감독청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유치원 4곳의 운영을 제한했다. 이번 제한 조치는 학생들 사이에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발견되어 행해졌다.

사할린주교육부에 따르면 28번 유치원 전체가 임시 문을 닫았고, 11번 유치원의 1개 반, 35번 유치원의 4개 반을 격리 조치했다고 전했다. "크로하" 아이 돌봄 그룹도 임시 아이들을 받지 않는다.

### '러시아' 항공, 모스크바-유즈노사할린스크 노선에 추가 항공편 운항 개시

'러시아' 항공은 모스크바-유즈노사할린스크 노선에 추가 항공편 운항을 개시했다. 해당 항공편은 세레메티예워 공항에서 출발하며, 7월 초부터 한 달에 50회 정도 운항 중이다. 승인된 일정에 따라 이제 수도로 향하는 항공편이 매일 운항된다.

### 사할린주, 124개 다자녀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

연초부터 124 개의 다자녀 가정이 주택 구입 또는 건설 비용을 2백만 루블리를 넘지 않는 선에서 50%까지 지원받았다. 올해 주예산에는 5억 6천만 루블리가 이 혜택을 위해 책정되었다.

이 혜택지원은 2014년부터 사할린 주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1인당 주거 면적이 정해진 기준보다 적은 다자녀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사할린 주의 각 구역의 정해진 생활 공간 제공 기준은 (12m<sup>2</sup>부터 18m<sup>2</sup>까지) 다르다.

새고려신문

## 2023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01루블리입니다. 신문 인텍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 금반세기를 함께 한 야마타 부부

7월 8일은 러시아에서 가정, 사랑 및 충실의 날로 기념한다. 전 러시아에서 많은 행사들이 펼쳐지고 다수 지역에서 우수한 부부, 가정들을 축하하기도 한다. 지난 8일(토) 사할린주의 우수한 가정과 부부들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공원의 행사장에서 축하했다. 이들 중에는 한국 성을 가진 분들도 있었다.

필자는 이들 가운데 야마타(송) 기성(러시아 이름 니콜라이·야마타(강) 학희(러시아 이름 알렉산드라, 청소년 시절에 사는 동네와 학교에서 알려진 이름은 학분) 부부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뻐했다. 올해 결혼 50주년을 맞이한 이 부부는 이날 사할린 주의 '가족, 사랑 및 충실'이란 명예의 배지(휘장)를 수여 받았다.

이들 사이에 애정, 우정, 신뢰와 존경이 많이 느껴져, 연락을 했고 집으로 초대 받았다.

'부부로 어떻게 만났는지'란 필자

의 첫 질문엔 알렉산드라 씨가 주로 답변했다.

이들은 알렉산드라가 18세 때인 청년의 날에 흠스크시에서 처음 만났다. 그 당시 회계과정을 수료한 알렉산드라는 친구와 함께 청년의 날 행사를 가려고 했다. 가는 길에 우연히 니콜라이와 그의 친구를 만나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그러나 알렉산드라 처녀는 댄스행사에 같이 가자는 니콜라이의 제안도 거절했고 같이 춤추러 가자는 것도 거절했다. 첫눈에 반한 니콜라이가 부끄러움에도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는데 거절을 당한 것이다.

"사실 처음 볼 때 '좋은 집안의 총각인가 보다. 옷도 깔끔하게 입었는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라고 알렉산드라 야마타가 말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서츠는 이런 색이었다, 바지는 이런 소재였다고 52년 전의 첫 만남을 회상했다.

첫 만남은 이어지지 않았다. 알렉산드라가 집까지 데려다주는 것도



한 칼에 거절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녀의 오빠와 언니를 아는 한 젊은이가 데려다 주었다. 그 사람이 같은 방향이어서 그랬는데 사실 가는 길에 싸운 기억만 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저녁, 친언니와 흠스크에서 산책하는데 한 무리의 러시아 젊은이들이 이들을 따라오고 있었다. 부모한테서 단단히

교육을 받은 알렉산드라는 겁이 났다. 소공원 한 나무의자에 한인남자가 앉아있었다. 보니까 아는 얼굴, 바로 니콜라이였다.

옆에 바로 앉으면서 '내 남편이 여기 있었네'라고 러시아 말로 하였다.

운명은 있나 보다. 이렇게 1년 이상 사귀다가 1972년 12월에 결혼했고 1973년 1월 6일 혼인신고를 하였다.

1953년생인 알렉산드라는 자녀 6명이 있는, 사랑이 많은 집안의 넷째로 태어났다. 식구들은 그가 2살때 코르사코브에서 흠스크구역의 빠찌레치에 마을로 이사왔다. 아버지 강영수 씨는 열매과일 숲호즈에서 브리가지르로 일하였다. 그와 함께 동생같은 동포들이 일했고 가족을 이루지 못한 남자들은 자주 강씨네 집을 찾고 가까운 친척처럼 배려와 따뜻함을 받았다. 알렉산드라는 이걸 보고 자랐다. 그리고 아버지가 매일 하는 보고서 작성을 도왔다. 넷째였

고 아직 어렸지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버지는 왠지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알렉산드라는 이에 대해 아버지에게 아주 고마워한다. "이 보고서 때문에 제가 모든 농업 기구, 기계, 농장에 쓰는 차 등 종류를 알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라고 알렉산드라가 말한다.

그의 아버지는 항상 '너희들은 손톱 밑에 흙이 안 들어가도록 공부를 잘 해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한다'고 하였다. 아버지의 소원에 따라 그는 회계원 전공을 선택해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일은 아무지게 하였다.

그의 경력에는 가장 큰 몫은 흠스크 공공 급식 공장(콤비나트)이 차지한다. 첫 직장으로 된 이 공장에서는 그는 1971년부터 20년 이상 일하였다. 거기에서 일반 회계원, 계획과 과장, 총수석 회계원 대행 등을 역임하였다.

(3면에 계속)

## 이 모 저 모

### 유즈노사할린스크, 어린이들을 위한 "카모마일 행복" 준비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동청소년작센터의 어린이 건강 캠프에 참가한 150여 명의 어린이와 부모가 "카모마일 (로마쉬카) 행복" 가족 축제에 참여했다. 이 행사는 전 러시아 대회 "2023 어린이를 위한 도시"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가족, 사랑 및 충실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행정부 홍보실에서 전했다.

행사에는 6~12세 어린이와 부모들을 위한 경연대회, 게임, 스포츠가 준비되었다. 아동청소년작센터의 감독 예카테리나 페호타의 의견에 따르면 가족의 좋은 가치와 친근한 환경을 어린이들에게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어린이를 위한 도시" 경연대회의 주요 목표이기도 하다.

시 행정부 측에서 이와 같은 행사는 전국 대회 일환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9월까지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 «Ромашковое счастье» устроили для детей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олее 150 детей, отдыхающих в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м лагере при ДДЮ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их родители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семейного праздника «Ромашковое счасть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Города для детей. 2023» и было посвящено Дню семьи,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эри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Для ребят от 6 до 12 лет и их родителей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конкурсы, игры и спортивные состязания. По мнению режиссера ДДЮТ Екатерины Пехота, та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могают сформировать у детей правильные семейные ценности и дружественную среду, а это и есть главная цель конкурса «Города для детей».

В мэрии напомнили, что подо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до сентября.

### 러시아, 7월 9일부터 새로운 아동 수당 규정 시행

러시아에서 7월 9일부터 아동 수당 지급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었다. 러시아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 또는 입양된 자녀가 있는 러시아인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운 조건은 노동부의 명령에 명시되어 있다.

이 명령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둔 러시아 국민은 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당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을 두 배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어머니가 수혜자이다. 단, 사망 혹은 친권이 박탈된 경우 아동의 아버지, 양부모 또는 후견인이 수

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러시아 시민권을 소지하고 러시아에 영구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또한 자녀 출생 후 3년 동안 언제든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후 6개월까지 신청하면 자녀가 태어난 첫 달부터 금액이 지급된다. 이후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해당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최저 생계비의 한 달 치이다. 다기능센터 또는 주정부 서비스 포털을 통해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 Новые правила назначения детских выплат вступили в силу в России 9 июля

Новые правила назначения детских выплат вступили в силу с 9 июля в России. За выплатой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россияне,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ющ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и если ребенок родился или усыновлен в период с 1 января 2018 года до 1 января 2023 года. Новые условия прописаны в приказе Минтруда.

Согласно приказу, за ежемесячным получением средств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граждане России, у которых ребенок родился или усыновлен в период с 1 января 2018 года до 1 января 2023 года. Кроме того, для получения пособия необходимо, чтобы доход на одного члена семьи не превышал два прожиточных минимума.

Как правило, выплаты назначают матери ребенка. Однако в случае ее гибели или лишения родительских прав за пособием может обратиться отец, усыновитель или опекун ребенка. При этом он должен иметь гражданство России и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ть в стране.

За пособием можно обратиться в любой момент с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в течение трех лет. При этом до полугодя сумму начислят с первого месяца рождения ребенка. Если позднее, то только с месяца обращения.

Размер выплаты составляет один прожиточный минимум для ребенка в регионе проживания. Заявление на выплату можно подать через МФЦ или интернет-портал «Госуслуги», ответ придет в течение 10 рабочих дней.

### 통계학자들, 사할린 주에서 가장 부유한 주민과 가장 가난한 주민 소득 격차 분석

사할린 통계국은 가장 부유한 주민들의 소득이 가장 가난한 주민들의 소득보다 13배 이상 높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격차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소득상위 20%의 인구나 소득 하위 20%의 인구 간의 평균 금전 수입 수준에서의 차이는 13.5배에 달한다. 또한 섬 지역의 총 인구 중 거의 절반이(45.4%) 가장 높은 소득을 받는 상위 20%의 인구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2022년에는 사할린 지역의 평균 월급이 73,617 루블리로 예상되었으며, 현재 2022년 기준 1인당 최저 생계비용은 월 18,930루블리이다. 이 지표에서 극동 지역에서 최고의 수치를 보이는 지역은 추코트가 자치구(월31,736루블

리)이며, 그 뒤로 캅차카(월25,223루블리), 마가단(월24,220루블리)순이다. 사할린 지역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5위를 차지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최저 기준 이하의 소득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전체 인구의 7%에 달한다. 이 지표에서 사할린은 극동 연방 지구의 구성 기관 중 추코트카 자치구(6.7%)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러시아 전체 평균 수치는 9.8%이다.

### Статистики оценили разницу доходов самых богатых и бедных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ходы самых богатых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вышают доходы самых бедных более чем в 13 раз.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Сахалинстата.

«Степень социального расслоения населения по-прежнему остается высокой. Разница между средними уровнями денежных доходов 20% населения с самыми высокими доходами и 20% населения с самыми низкими доходами (коэффициент фондов) — 13,5 раза»,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В ведомстве добавили, что почти половина общего объема денежных доходов всего населен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45,4%) была сосредоточена в руках 20% населения с наивысшими доходами.

Еще интересное из статистики: в 2022 году среднедушевые денежные доход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составили 73 617 рублей в месяц.

В текущем 2022 году размер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на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составил 18 930 рублей в месяц. Лидерами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являются Чукотский АО (31 736 рублей/мес.), Камчатский край (25 223 рублей/мес.) и Магаданская область (24 220 рублей/мес.).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имает пятое место, как и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находящихся за чертой бедности (с доходами, ниже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минимум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оставляет 7% от общего числа населения.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регион занимает второе место среди субъект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уступая только Чукотскому автономному округу (6,7%), а средние показатели по России составляют 9,8%.

### 유즈노사할린스크, "창의적 토요일" 축제 진행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지난 주말 "창의적 토요일" 축제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1,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보존부 홍보실에서 전했다. 7월 8일에 가정의 날을 겸하여 열린 축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손님과 부모들을 위한 인형극, 도서 전시, 포토존, 게임, 크웬스트, 워크샵 등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이 행사에서는 예술단들이 공연하고 사할린 미술가들은 작품 전시를 하였다. 방문객들은 작품을 통해 예술을 즐기고 예술가들의 재능을 감상할 수 있었다.

(8면에 계속)

# 사할린 씨름선수들, 중국 연길에서 메달7개 따내

지난 8-9일 중국 연길에서 2023년 제2회 엔지(연길)-블라디보스토크 문화스포츠 국제교류축제가 진행되었다. 이에는 중국 및 러시아 청소년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댄스 및 스포츠 대회가 펼쳐졌다. 선수들은 주짓수, 종합 격투기, 레슬링과 한민족 씨름 경기에서 경쟁했는데 러시아 측은 금메달 32개, 은메달 18개와 동메달 7개를 따냈다.



대회에 참가한 사할린씨름협회(회장 춘 알렉세이)의 선수들은 금메달 5개(춘 키릴, 춘 아르쎘, 쿨리크 마트웨이, 오구르초와 아킬리나, 치푸로브 마트웨이), 은메달 1개(로체와 올리아), 은메달 1개(고코브 미하일)를 획득했다고 사할린주씨름협회에서 전했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주씨름협회 제공)

# 우글레고르스크, 루스키 차의 날 기념

우글레고르스크 주민들이 '러시아(루스키) 차의 날' 행사를 처음 진행한 지 10년이 되었다. 이 특별한 행사는 이제 사할린 너머 다른 지역까지 알려졌다. 올해는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에 업무 차 방문했던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도 러시아 차 축제에 참여했다.

우글레고르스크 주민들에 의해 시작된 민속 축제는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 10년 동안 이 지역 행사는 당국의 지원을 받아 다채로운 축제로 발전했으며, 섬 지역을 상징하는 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또한 이 날에 가족, 사랑, 충실의 날을 기념하며 이 두 개의 중요한 기념일을 겸해 전통적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반세기 이상 함께 살면서 자녀와 손자를 훌륭하게 키운 부부들을 축하하는 시간도 있었다.

기념 행사에서 손님들은 러시아 블린을

대접받았다. '가장 맛있는 베이킹' 대회에 24개 이상의 팀이 참가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가장 향기로운 차와 가장 맛있는 블린은 방문객들이 직접 투표로 선정했다. 지역 기업가들은 행사를 위해 무료로 과자를 제공했다.

주최측은 먹거리 뿐만 아니라 볼거리도 정성껏 마련했다. 어린 방문객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공간, 페이스 페인팅, 창의적인 마스터클래스들이 준비되었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포토 부스, 운동장, 전시회도 열렸다. 우글레고르스크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창작 그룹 공연, 스포츠 대회, 기념품도 축제에 참여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제공했다.

사할린 주민들은 특별 군사 작전 지역에서 복무 중인 사할린의 전사들을 응원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군인들을 위해 머그잔에 그림을 그렸다.

# 금반세기를 함께 한 야마타 부부

## (2면의 계속)

바로 이 직장에서 알렉산드라를 흠스크 구역 의회의 인민대의원 후보로 추천하여 선거에서 당선된 야마타 씨는 1990년 1993년까지 구역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그후로 흠스크 세무국에서 활약하고 1997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사해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세무국에서 근무하였다.

1951년 돌린스크시에서 큰 식구의 막내로 태어난 그의 남편 니콜라이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14살 때부터 일하게 되었다. 사실 8-9세부터 이집 저집 다니며 자란 그에 대해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 형제들은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소년 시기에는 태도가 삐뚤어졌었는데 사랑을 만나고 나서 보살핌과 애정으로 그의 삶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니콜라이는 경력 56년째로, 처음엔 용접, 철공 등의 일을 하고 있었다. 가족을 이룬 그는 성장을 위해 흠스크에 있는 사할린해양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흠스크시의 가장 큰 기업인 사할린해상운송회사 건설설치국의 기계전문가로 입사하여 나중에 오랫동안 수석 청 기계전문가로 활약하였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이사하여 여러 건설회사에서 일하였다. 어디에서 일하던 책임있고 전문적이고 발명재능이 있다고 소문날 정도로 그의 손은 금손이다. 2년전에 70

세가 되자 자녀들이 '아버지, 제발 좀 쉬세요.'라고 해서 일을 그만두었는데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요새는 '일 좀 해볼까'하는 말이 절로 나온다.

부부는 큰 집에 살고 있어 매일 매일 집, 마당, 밭에서 할 일이 많다. 지금 사는 집은 그가 거의 혼자 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자들에게 집의 기반, 틀만 만들었고 나머지 작업은 거의 혼자 맡았다.

애정을 갖고 지은 집이라는 게 느껴진다. 여름 주방, 나무, 텃밭, 열매, 채소와 나물 등등 - 모든 관리를 부부가 잘 해내고 있다.

집안 설계가 그렇다. 아들과 딸이 물론 자기 짝들을 만나 따로 살고 있지만 이들과 3명의 손자녀(손녀 둘, 손자 하나)를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아이들은 엄마,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걸 좋아하고 잠도 자주 잔다.

집 맨 위층에는 탁구를 할 수 있는 방이 있다. 부부는 둘이서 자주 탁구를 친다.

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말할 때는 따뜻함이 느껴진다.

알렉산드라씨는 번개처럼 빠르다. 뭐든지 하면 빨리 하는 스타일이라 정년퇴직을 해도 하루 일정이 바쁘다.

세무소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해, 알렉산드라는 한때 사할린주 의회 홍보실 직원으로 활약하고 특히 의원들과 여러 계층 주민들과의 만남을 조직했다. 그

때 처음 한인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알게 되고 나중에 특히 2000년도 초기 당시에 적극적으로 사할린한인문제를 내세운 '정의복권재단'(지도자 김복권)단체에서 여러 활동을 하였다.

러시아 여성 동맹 회원인 그는 나중에 사할린한인여성회 회원이 되어 현재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몇년전부터 한민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에서 한민족 무용을 배워 많은 무대에 올랐다. 1

년반 전에 이 단체는 두 무용단으로 나뉘어 활약하게 되었는데, 야마타 씨는 6명으로 구성된 새로 만들어진 '희망'무용단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 무용단은 한민족 춤 뿐만 아니라 에스트라다 춤도 많이 춘다. 중년 여성들로 구성된 이 무용단은 인기가 많다. 도시의 여러 행사에도 참가하고 '춤의 세계'댄스단체 연합 회원으로서 여러 경쟁대회에도 참가한다.

그래서 야마타 부부의 집을 방문하기 좋아하는 수많은 친척, 친구, 동료 등은 요즘은 방문을 자제하게 되었다. 알렉산드라 씨가 너무 바빠서 방문이 가능한지 스케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드러나지 않게 봉사 활동도 하는데 예를 들어, 네웰스크 대지진 이후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와 있는 네웰스크시민들을 개인적으로 돕고 그 당시 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 목사 부부를 통역하기도 했다.

그는 한글을 잘 읽을 수 있다고 자랑한다. 조선학교 1학년만 마친 후, 러시아어 공부를 잘 해 부모는 그를 러시아학교에 보냈다. 한때 그는 할머니들의 부탁으로 우리 신문을 자주 읽어주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었더니 낭독재주가 생겼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과정의 한국어 수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가 조선학교 1학년만 마쳤다는 사실을 강사들이 믿지 않을 정도였다.

집주인들은 항상 손님을 받을 준비가 돼있다. 언제 와도 반찬 몇가지 정도는 항상 갖추고 있다. 낮에 바쁘니 주로 밤에 반찬을 만든다. 속도가 빠른 사람이라 똑딱하면 다 된다. 손재주가 있으니 요리는 맛있다. 그리고 니콜라이 씨도 물고기나 고기 훈제를 직접 만든 기구로 자주 한다.

부부는 야외활동도 많이 한다. 함께 낚시도 하고, 특히 겨울 낚시를 즐기고 다양한 형태의 여행도 좋아한다. 온천도 가고 바닷가에 가는 것도 엄청 좋아한다. 이들은 그 외에도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많은 얘기를 들려준 알렉산드라는 얘기하면서도 계속 움직였다. 입은 입대로 손은 손대로 부지런히 움직였다. 필자가 알렉산드라씨와 친분이 있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준 것 같다. 작별 인사를 하며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만 써달라고 부탁했다.

10년전 알렉산드라에게는 또 하나의 취미가 생겼었다. 주현절 때, 보

통 겨울의 추위가 가장 강한 때 얼음물에 입수하는 것이다. 한 5년전부터 성수에 입수하는 것을 딸도 즐기게 되었고 3년전에는 남편도 영하 20도가 넘는 날, 처음 호수물에 들어갔다.

건강한 습관을 키우는 이들은 병을 키우는 것보다 예방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운동도 하지만 건강 영양제도 많이 섭취한다. 안전하고 질 좋은 비타민과 건강 보조 제품 말이다.

부부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알렉산드라 씨는 "한인 여성은 결혼할 때 보통 남편 성을 안 갖고 자기 성을 남기잖아요. 저는 바꾸었어요. 이유는 남편이 한인이지만 당당히 그의 성이 일본성으로 적혀 있었고 여권에는 전 일본 국민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때 허가가 바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러시아 국적 취득하려고 2년간 매년 여러 공식기관에 신청을 했는데 항상 거절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국적을 받기 위해서 남편 성을 가졌어요"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던 니콜라이 씨는 "아, 그럼 날 사랑하지 않고 그저 이익을 받기 위해서 혼인했나"라고 한다. 웃으며 말하는 그의 눈에는 애정이 넘쳤다.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애정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배순신 기자)

# 사할린주, 국제 협력에 열려 있어

## (1면의 계속)

그리고 멕시코는 사할린 액화 천연가스에 잠재적인 관심이 있다. 세르비아의 무역 대표는 멕시코의 시민들이 종종 러시아를 여행하며 섬의 "고르니 위즈두흐"와 사할린 지역의 다양한 자연 지역을 방문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독일과 폴란드 주재 무역 대표는 이들 국가의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유럽 국가에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진 후 협력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사할린 주정부가 2023년 9월 28-29일 섬 지역에서 열리는 극동 에너지 포럼에 중국 파트너를 초청한 바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포럼을 계기로 중국 당국 및 기업 대표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여러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

# 선관위, 총선 9개월 앞두고 178개 해외공관서 모의 재외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공관에서 모의 재외투표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모의 재외투표는 지난 10일 총 183개 해외 공관 중 178개 공관에서 실시됐으며, 대사관 직원 등 재외국민 2천661명이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외교부, 법무부, 대법원, 대검찰청, 재

외동포청, 우정사업본부 등이 투표 업무를 함께 했다. 재외투표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6번의 선거에서 70만여명의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했다.

선관위는 내년 총선 재외투표를 위해 오는 10월 13일부터 공관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11월 12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Сахалин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завоевали награды в Китае

С 8 по 9 июля в китайском городе Яньцзи состоялся ежегодн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ультурно-спортивный фестиваль «Яньцзи – Владивосток 2023». В нем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более 200 ребят из Китая и России. Он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танцевальных и с спортивными состязаниях.



Спортив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шли по таким видам спорта, как джиу-джитсу, бокс, бои ММА, спортивная или вольная борьба и корей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борьба ссирым. По итог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российская сторона завоевала 32 золотые, 18 серебряных и 7 бронзовых медалей.

В фестивал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также борцы ссирым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итогам поединков они завоевали 5 медалей высшего достоинства (Чун Кирилл, Чун Артем, Кулик Матвей, Огурцова Акилина, Чифуров Матвей), одно серебро (Рочева Юлия) и одну бронзу (Гоков Михаил).

(Студенты СахГУ Татьяна Григорян, Мирсаидхон Одилов)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Федерацией ссиры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т Москвы – до самых до окраин

Москва, 11 июля – ИА РУСКОР

В Доме народов России состоялась отгрузка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на Донбасс. Сбор средств осуществлен (продукты и комплекты бронжилетов) созданным спецфондом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ООК). Собранные средства были переведены россий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из мног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сле обращений через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где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об участниках СВО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Гуманитарные акции проводятся также в региональных отделениях ООК во многих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1 июл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АКОДВС) в рамках масштабной акции, которая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29 июля, отгрузила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удэгейское село Гвасюги для местного детского сада, который посещают дети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комплекты мебели и других необходимых вещей для комплексной реконструкции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этого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мебель, одежда и белье, мольберты для рисования, детские кровати, друг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Всё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ым благодаря группе «Неравнодушные люди», в которую входят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 члены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АКОДВС). 29 июля в рамках гвасюгин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Встреча сородичей» эти предметы будут торжественно переданы детскому саду, сообщили в Ассоциации.

## В РК низкий коэффициент замещения дохода

На фоне развития технологий, изменений в структуре населения и ситуации в макроэкономике в мире усугубляется поляризация в сфере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разница в накоплениях и страховом покрытии с реальными расходами, возникающими в непредвиденных ситуациях, включая потерю работы и серьезные заболевания.

По данным Глобальной федерации страховых ассоциаций (GFIA), РК относится к категории стран с высокими медицинскими расходами. Доля прямых расходов человека на лечение за вычетом страхового покрытия составляет в среднем 34,3%. Это гораздо выше среднего показателя по Организа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развития (ОЭСР), составляющего 20%. Кроме того, в РК низкий коэффициент замещения, то есть, соотношение пенсии к прежним доходам. Он составляет 47%, а средний показатель по ОЭСР - 58%.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нормального уровня жизни после выхода на пенсию эксперты ОЭСР рекомендуют коэффициент замещения в размере 65-75%.

KBS World

## Как поступить в корей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стратегия, стоимость, гранты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26)

Владимир советует спустить планку. Во-первых, конкуренция среди абитуриентов в топовых университетах выше, а стоимость семестра и проживание — дороже.

**Владимир Тен:**

— Раньше в Южной Коре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ло важно, насколько престижен твой университет и какое место он занимает в рейтинге. Но времена меняются. Для современного работодателя уже не критично, какой вуз закончил кандидат.

Главное — его навыки, опыт, умения. Поэтому будучи студентом участвуйте в проектах, работайте — и тогда вы будете боле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 в глазах потенциального работодателя, чем кандидат, который не имеет ничего, кроме диплома престижного вуза. Сегодня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даже нанимают людей, у которых нет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о есть ценный навык, за который они готовы платить.

1. Другое.

Оцените университет по индивидуальным, интересным именно вам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 размеру кампуса, наличию определе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редполагаемым программам.

**Какие существуют стипендии в Южной Корее**

В Узбекистане мы привыкли воспринимать стипендию как ежемесячную выплату студенту, а в Корее это скидка на оплату обучения. Популярны программы, попасть на которые мечтают все иностранцы:

— GKS Scholarship. По этой программе каждой стране выделяется определенное (не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Например, гражданам Узбекистана в предыдущие годы предоставлялось 4 места, с этого года квоту сократили вдвое. Участвовать могут абитуриенты люб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 OKFellowship.

Стипендия покрывает программу обучения в бакалавриате, магистратуре, докторантуре дл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ограммы GKS Scholarship и OKFellowship полностью покрывают обучение,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 ежемесячные выплаты и участие в культур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ах. Обратная сторона медали — высокая конкуренция. И тут важно быть честным с самим собой: действительно ли вы можете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такую стипенди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Если вы понимаете, что уровня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школьных оценок и достижений не хватает, чтобы пройти на GKS или OKFellowship, то продумайте другую стратегию поступления.

**Владимир Тен:**

— Я изучал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Центре образов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Ташкенте. По стипенди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для школьников я

поехал в Южную Корею, где 3 года проучился в старшей школе. Плюс: появился опыт жизни в стране. Минус: так как я уже был участником стипенди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то не мог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другие гранты — GKS, OKFellowship. Так что поступать в корей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пришлось собственными силами.

Можно получать гранты напрямую от университетов. Они бывают 2 видов:

1. Стипендия при поступлении. Некоторые вузы предоставляют возможность начать обучение со скидкой или даже бесплатно.

Чтобы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такую стипендию, кандидат должен иметь уровен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ыше третьего и сильное портфолио (бэкграунд, эссе, мотивационное письмо). Стипендия выдается на семестр, и при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ах (хорошие оценки, сильные проектные работы) ее продлевают.

1. Стипендия во время учебы. Университет дает ее за высокую успеваемость в прошлом семестре,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проектах, повышение уровня языка.

**Владимир Тен:**

— С 2016 -2020 гг. я учился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и получал стипендию, частично покрывающую стоимость обучения. Оставшуюся сумму приходилось зарабатывать самому. Я побывал грузчиком, переводчиком, сотрудником горнолыжной базы. В Корее есть замечатель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работать и самому оплачивать контракт.

**Критерии поступления в вузы Южной Кореи**

Условия можно разделить на обязательные и необязательные. Среди первых:

1. Полное среднее образование. Подавать документы можно, будучи учащимся 11 класса;

2. Иностранное гражданство у студента и родителей;

3.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поступления в корейский вуз минимальный уровень языка — третий. Но чем лучше вы знаете язык, тем выше шансы на поступление и получение стипендии;

4. Финансовая состоятельность.

Необходима справка о наличии на счету \$20.000. Однако некоторые университеты разрешают обойтись без этой справки, если у абитуриента есть виза этнического корейца. Официально это нигде не указывается, нужно уточнять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отделе учебного заведения.

Среди необязательных критериев — грамоты и награды. Если вы участвуете в молодежных или волонтерских инициативах, работаете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то попросите подтверждающую справку. Корейцы очень любят социально активных людей.

**Екатерина Цой**

Источник: «Корейцы Узбекистана» № 11 (87)

## Вторая жизнь символа близости с Китаем

Сеул, 9 июля – ИА РУСКОР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вершила реконструкцию башни, символизирующей ее дружбу с Китаем, в преддверии 70-й годовщины перемирия, положившего конец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1950-1953 годов, сообщ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МИ Севера.

Церемония, посвященная завершению проекта, который был осуществлен по приказ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ен Ына, состоялась в Пхеньяне, согласно официальному центральному информационному агентству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Это событие произошло на фоне стремления Севера укрепить связи с Китаем, своим традиционным союзником и экономическим благодетелем, на фоне глобальных санкций в отношении его ядерной и ракетной программ и застопорившихся переговоров 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с США.

Участники церемонии, в том числе председатель постоянного комитет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Чхве Рен Хэ и посол Китая Ван Яцзюнь, рассказали об истории своей дружбы и пообещали укреплять эти отношения в будущем.

Перемирие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было подписано 27 июля 1953 года, спустя чуть более трех лет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войска под командованием танков вторглись в Южную Корею. США и 20 других союзных стран сражались на стороне Южной Кореи под флагом ООН.

Назвав конфликт Великой войной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ечеств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азначила дату примирения как День Победы.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резидент РК встретился с лидерами стран НАТО

11 июля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провёл в Вильнюсе ряд двусторонних встреч с лидерами стран-участниц саммита НАТО. Он встретился с лидерами Норвегии, Нидерландов, Португалии, Новой Зеландии, Венгрии, Румынии и Швеции.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с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Норвегии Йонасом Гаром Стёре обсуждалис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ядерная проблема, вопрос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возобновляемой энергетики и обо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Затем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встретился с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Нидерландов Марком Рютте.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нарастающие темп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двух стран после визита Рютте в Сеул в ноябре 2022 года. РК и Нидерланды активно взаимодействуют в сферах обороны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и ядерной энергетики. Лидеры двух стран договорились об углублении и укреплен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целях стабилизации глобальной цепочки поставок. В этот день также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Юн Сок Ёля с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Португалии Антониу Коштой. В ходе неформальной встречи португальский лидер выразил желание разв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ыми компаниями двух стран.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опросил своих европейских коллег поддержать заявку РК на проведение Всемирной выставки 2030 года в Пусане.

## Оппозиция РК против сброса воды с АЭС «Фукусима»

11 июля делегация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провела в Токио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ю, выразив протест плана сброса загрязнённой воды с АЭС «Фукусим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артии потребовали отменить данный план, назвав его серьёзной угрозой экологии океана. Они опубликовали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с крупнейше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ей Японии, потребовав пересмотра плана в интересах будущих поколений двух стран.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от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Ви Сон Гон заявил, что сброс заражённой воды является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м событием. Власти Японии и Токийская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ческая корпорация,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оператором АЭС, завершили подготовку к сбросу, сосредоточившись на изменени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внутри страны и за её пределами.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ки, торговли 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Японии провело встречу с местными рыболов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заявив о неизбежности сброса воды и пообещав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ддержку тем, кто потерпит ущерб. Однако рыбаки выступают против пла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анее японские СМИ сообщали, что на полях саммита НАТО в Вильнюсе и министерской встречи АСЕАН в Джакарт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Фумио Кисида и глава МИД Японии Ёсимаса Хаяси постараются убедить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е страны, в том числе РК и Китай, в оправданности плана сброса воды.

## Обсуждение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платы на 2024 год продолжается

11 июля на очередном заседании комиссии по минимальной оплате труд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рудящихся и работодателей представили пересмотренные варианты размера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платы на 2024 год. Профсоюзы предложили установить её в размере 11.140 вон (8,61 доллара) в час, в то время как вариант работодателей составил 9.740 вон (7,53 доллара) в час. За время обсуждения разница между их вариантами сократилась с 2.590 вон до 1.400 вон. Однако, как считают эксперты, до достижения консенсуса ещё далеко. Срок определения минимальной зарплаты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истёк 29 июня, но участники переговорного процесса никак не могут прийти к единому мнению.

## Структура населения РК стремительно меняется

Около половин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мужчин в возрасте от 25 до 50 лет не женаты. Среди женщин аналогич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ил порядка 30%.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в День населения, который отмечается 11 июня. По статистическим данны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стра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192 тыс. браков, что на 103 тыс. меньше, чем в 1970 году. Доля семейных людей из расчёта на тысячу человек населения составила 3,7. Это на 1,8 меньше, чем в 1970 году.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вступления в первый брак составил 33,7 года для мужчин и 31,3 года для женщин. Если в 2010 году 35,3% мужчин в возрасте от 25 до 50 лет не состояли в браке, то в 2020 году - 47,1%. Среди женщин показатель вырос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с 22,6% до 32,9%. В прошлом году родились 249 тыс. детей, что в два раза меньше, чем в 2012 году. При этом экономическая активность женщин выросла с 48,8% в 2000 году до 54,6% в прошлом году. Если нынешняя ситуация сохранится, то к 2041 году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РК составит менее 40 млн человек. До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старше 65 лет возрастёт к тому времени с нынешних 18,4% до 34,4% населения.

(RKI)

## Сеул: КНДР стала признавать Южную Корею отдель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Использованные в ходе недавних заявлений от 10-11 июля официальными лицами КНДР формулировки привлекли внимание экспертов. Впервые Пхеньян стал использовать те самые обороты,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ует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для обозначения себя как государства. Эксперты предполагают, что это может означать сдвиг в доктрине Пхеньяна, когда Южная Корея теперь будет и официально считаться отдельным, пусть и враждебным Северу, государством.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стоит пояснить, что по-корейски нельзя сказать просто "Корея". Используемые обороты сразу "выдадут", про какую часть полуострова идет речь – южную или северную, а также ясно, кто именно говорит –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НДР ил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рейцы Юга и Севера понимают друг друга, но уже накопилось достаточно и различий в языке, в том числе по части официального наименования.

Например, граждане РК в отношении своей страны говорят "хангук", а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 "пукхан".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траны чучхе назовут свою страну "чосон", государство, где живут "южные братья по крови" – "намчосон". При этом, если иностранец перепутает, используя в определенной части Кореи не свойственный для нее оборот, то это сразу "резанет" ухо корейцу.

Так было до сих пор, но в заявлениях, которые 10-11 июля сделала младшая сестра Ким Чен Ына Ким Ё Чжон, впервые были применены обороты, которые свойственны официальному слогу именно Юга. Если говорить точнее, то было использовано официальное назва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том виде, в котором она называет себя сама – "Тэханмингук" (дословно: "Велико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ая республика"). Обычно в официальных заявлениях КНДР по поводу южан Север говорил либо в лучшем случае "намчосон"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слово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либо – что еще чаще – "южнокорейские марионетки". Хотя высказывания от 10 и 11 июля были весьма критическими и содержали угрозы в адрес как РК, так и США, но были использованы выражения "Генеральный штаб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дчиняющиеся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 "военны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амо выражение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было заключено в тексте заявления в кавычки, тем не менее оно было использовано северянами, причем, насколько можно судить,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По поводу таких изменений в самой Южной Корее придерживаются той точки зрения, что, похоже, в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доктрине КНДР произошли определенные корректировки в пользу признания объективной ситуации. То есть, Пхеньян рассматривает

теперь (или как минимум стал склоняться к подобной точке зрения)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как пусть и не очень дружественное, но отдельно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а не "часть полуострова, которую незаконно захватили мятежник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мериканских империалистов".

Подобного рода настроения, по слова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экспертов по Северу, в КНДР стали наблюдаться еще с начала 2021 г., после проведения VIII-го съезд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По мнению Сеула,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того, что Пхеньян будет выстраивать с Югом отношения в том же стиле, что и с другими "обыч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не рассматривая РК как "восставшую часть страны, которую надо присоединить, подавив действующий там незаконный режим".

В пользу этого, в частности, приводится и тот пример, что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когда делалось заявление от имени КНДР о решении отказать в визите в страну президенту корпорации "Хёндэ" Хён Чжон Ын, то высказывание прозвучало от имени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а не Комитета по мирн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Родины. Последний считался ведомством, ответственным в КНДР за связи с Югом. МИД же курирует отношения со всеми друг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Заявление Ким Ё Чжон, в котором есть упоминани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корее всего является признаком перехода к точке зрения о существовании двух полноц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 Юга и Севера", – цитируют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здания слова декана сеульской Аспирантур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Ян Му Чжина.

Для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отметим, что и в Южной Корее весьма "специфически" относятся к КНДР. Отношения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курирует отдельное ведомство –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ъединения, а не МИД, межкорейская торговля не включается в статистику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и РК, и идет особым разделом "межкорейские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не применяется также официальное название КНДР, которое Пхеньян использует для себя. Кроме тог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еула до сих пор существует и получает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любопытная структура – "Управление северных провинций". Формально на него возложено управление теми территориями,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под контролем Пхеньяна, постоянно назначаются "виртуальные" руководители провинций КНДР, существует аппарат помощников и секретарей. Впрочем, эта структура, реально никак не влияя на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а больше работает по линии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й политики Сеула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 Студенты КНДР победил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хакеро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туденты одержали убедительную победу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по кибербезопасности, где задачей ставился взлом компьютерных систе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заявление было сделано "Радиостанцией свободная Азия", а такж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Политехническим университетом имени Ким Чхэка в Пхеньяне, опубликовавшем пресс-релиз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вуза.

Состязание с 20 по 27 мая проводила базирующаяся в США индийская компания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программ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HackerEarth. Всего в конкур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700 специалистов, которым были поставлены задачи по взлому различных систем. В итоге первое место с максимальным возмож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в 800 баллов занял студент Политехн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Ким Чхэка. Кроме того, его коллеги по вузу взяли также третье и четвертое места, сделав доминирова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абсолютным. В заявлении вуза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они не намерены заикливаться на результате, а будут с еще большим усердием работать, чтобы завоевывать новые награды, подтверждая высочайший уровень IT-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КНДР.

Отметим, что, согласно сообщению "Радиостанции свободная Азия", другой "конкурс хакеров" та же компания HackerEarth проводила еще раз позже – с 17 по 24 июня. Результаты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также оказались очень неплохими.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нял студент из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Ким Ир Сена, тогда как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олитеха" им. Ким Чхэка оказались на 5,6 и 9-й позициях в итоговом зачет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 В РК проходит Съезд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ссоциации усыновлённых корейцев

С 11 по 16 июля в 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е выставок и конференций COEX проходит Съезд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ссоциации усыновлённых корейцев (ИКАА), действующей с 2004 года. Цель съезда состоит в укреплении единства между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и активизации обменов между усыновлёнными корейцами по всему миру. Такие съезды проходят ежегодно в порядке очередности в РК, США и Европе.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в нынешнем съезд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около пятисот делегатов из числа усыновлённых корейцев и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из десяти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из США, Канады, Дании, Норвегии и Швеции.

KBS World

## РК расширяет присутствие на рынке цифровых контентов Европы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работающие в сфере миксов, издательского дела, видео- и игровых контентов, достигли значительного успеха в ходе выставки-ярмарки K-Story & Comics in Europe-2023, проходившей в Париже с 4 по 6 июля.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ного контента, 15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рофильных компаний провели около 300 консультаций, подписав контракты на экспорт контентов на сумму 5 млн 276 тыс. долларов. Кроме того,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конференция на тему вебтунов.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года подобные выставки-ярмарки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в Северной Америке и Германии.

KBS World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ткрыта дл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рабочую встречу с торговы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Мексике, Марокко, Узбекистане, Мьянме, Польше, Германии, Объединенных Арабских Эмиратах и Сербии.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деловых и торговых отношений для взаимовыгодных поставок товаров, а также возможного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 Сегодня мы живем в условиях жесткого санкционного давления со стороны недружественных стран. Эти вызовы стали мощным стимулом для диверсификации экономики и поиска новых деловых партнеров.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наладить деловые и торговые отношения со странами, в которых работают наши торгов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л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поставок необходимых товаров на территорию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экспорта, а также для возможного привлеч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и созда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мощностей в регионе,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дней торгов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ссии в ряде государств посетили на Сахалине завод СПГ в Пригородном, Корсаковский порт,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строящиеся нефтегазовый и агропромышленный парки, а также встретились с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ом региона.

– Действительно, услов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ейчас непростые. Но что касается, например, Объединенных Арабских Эмиратов – эта страна соблюдает в отношении с Россией нейтралитет. Эмират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инвестировании по всему миру, и, в частности, в Россию. Мы поехали по острову и увидели большой потенциал в регионе, задел на будущее создается уже сейчас. Поэтому мы видим большие перспективы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частности, ОАЭ проявляет интерес к Северному морскому пути, хабом которого станет Корсаковский порт, – поделился мнением торгов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бъединенных Арабских Эмиратах Андрей Терехин.

Торгов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в Марокко Алексей Андреев добавил, что африканская страна тоже потенциально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развитии Севморпути и готова экспортировать свои товары, в частности различные фрукты, а с Сахалина возможно экспортировать рыбную продукцию в эту страну.

Предметно обговорить перспективы о торговле с Сахалином готов и торгпред России в Мьянме. Эта страна производи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качественного риса и экзотические фрукты. А Мексика потенциально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сахалинском сжиженном природном газе. Торгпред в Сербии отметил, что граждане этой страны часто путешествуют по России 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бы посетили островной «Горный воздух» и различные природные уголки региона.

Торгпреды в Германии и Польше отметили, что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о этих стран готово возобнов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осле принят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шений в европ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ах.

Напомним, ране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гласила китайских партнеров н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форум,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28–29 сентября 2023 год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ряд встреч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власти и бизнеса КНР, в том числе на полях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орума, и предложил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ряде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 Корпус Сахали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к новому учебному году

Ремонт пройдет в Институте естественных наук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учебном заведении обновят фасад, входные группы, а также холл и учебные классы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В сентябре здесь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будут углубленно изучать точные и естественные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500 школьников».

Косметический ремонт пройдет в кабинетах информатики, математики, биологии и физики. Обустраивают также научные лаборатории по химии и учительскую. Все помещения расположены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Лекции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дня, в свободное от учебы время.

– Ребята будут соприкасаться с реальной наукой,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делать проекты вместе с нашими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 кандидатами и докторами наук. Свои разработки они потом смогут выносить на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ие конференци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уровня, заявлять о себе и бесплатно получать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 отмет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Александр Самардак.

Для способных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будут открыты научные лаборатории главного островного вуза. К примеру, в одной из них собраны и оцифрованы самые известные эксперименты нобелевских лауреатов по физике. Таких лабораторий всего две в России.

– В августе необходимо завершить основной объем работ по косметическому ремонту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 покрасить, побелить, сделать электропроводку, поменять двери, обновить потолки. Также нужно обновить фасад, входные группы и дворовую территорию, чтобы в новом учебном году не только школьникам, но и студентам было приятно вернуться в институт. Хорошо, что нам удалось заручиться поддержкой феде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и нача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ередового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Но это перспектива, закрыть потребность обучающихся и создать для

них приемлемые условия университету необходимо уже сейчас,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дальнейшем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ждут не только первый, но и другие этажи Института естественных наук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втором этаже будут обустроены лаборатории по электроник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й энергетике, информацион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и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теллекту. На третьем – расположатся комплексы по аквариогенетическим технологиям, на четвертом – химический и материаловедческий кластеры. На цоколе размещаются специальные бассейны с фильтрацией для разведения марикультуры. Учебные программы для студентов разрабатываются совместно с потенциальными работодателями – круп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Гидрострой», «Сбер» и т.д.).

Напомни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же стартовали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кампуса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Тех».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должны возвести на месте бывшего Дома офицеров в 2026 году. Самым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там будут обучаться порядка 1500 студентов. А современный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появится на проспекте Победы.

Проект по созданию кампусов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Наука и университеты», реализуемого Минобрнауки России, который запущен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В. Путина.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азвернулись масштабные рабо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объездной дороги

Первый этап объездной дороги в обход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участок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8 километров – должны завершить уже в август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Новая транспортная артерия соединит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с федеральными трассами и освободит центр города от грузовых машин.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а стало частью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лана по развитию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агломерации, предполагающего, в том числе, модернизацию и развитие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ообщения.

Ход работ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дороги провер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Масштабные работы стартовали в июне. Сейчас на объекте ведутся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ырубка деревьев, устройство подъездных дорог, водоотведение, земляные работы по устройству выемки.

– Когда мы следующим летом пустим объездную дорогу, город сразу задышит легче. Цент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удет освобожден от грузового транспорта, что положительно скажется на количестве пробок и сократит количество дорожно-транспортных происшествий,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На объездной дороге, на перекрестке основных дорог, запланировано создание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Промышленные объекты и склады должны быть перемещены на объездную, а на их месте, в центре города, должны строиться жилые микрорайоны и социальные объекты. Городскую территорию необходимо использовать эффективно и с умом.

Новая дорога свяжет федеральные трасс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Холм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Корсаков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Общая протяженность транспортной артерии составит более 40 километров. Работы разбиты на несколько этапов, завершить их планируется в 2026 году.

– Мы развяжем узел Сахалинская – Холмское шоссе. Сейчас весь грузовой трафик идет по юго-западному объезду, доезжает до Лермонтова, потом на Холмское шоссе и дальше в город. Благодаря новой объездной дороге мы этот узел выключим,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он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через старое Дальнее, – пояснил мэр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Отметим также, что в регио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работа по асфальтированию федеральной трасс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строено 59 километров дороги на нескольких участках. Также рабо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и реконструкции ведутся на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естных дорогах.

## В новом аэровокзал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ведены тестовые испытания с участием волонтеров

Тестовые испытания проведены в новом аэровокзал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 ходом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ое проводится в преддверии официального пуска объект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прослед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Новый аэровокзал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крупны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Здание площадью более 47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рассчитано на 5 миллионов пассажиров в год. В нем установлены 26 стоек регистрации, оборудованы 11 выходов на посадку, 43 кабины паспортного контроля, 18 пунктов досмотра.

Тестовые испытания начались, когда 300 волонтеров в ярких футболках вошли в просторное помещение аэровокзала. Они выступали в роли обычных пассажиров: проходили регистрацию, досмотр, сдавали и получали багаж, ждали посадку. Кто-т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о сценарием должен был найти комнату матери и ребенка, пользуяс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указателями. Другому требовалось пройти процедуру сдачи оружия, третьему – оплатить негабаритный багаж. По окончании мероприятия они должны были сообщить представителю аэровокзала о всех возникших проблемах. Цель тестовых испытаний – в условиях, максимально приближенных к реальности, выявить и устранить сбои в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ы с пассажи-

рами и их багажом, технические неисправности. Только после этого можно будет переходить к процедуре официального ввода объект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 По требованию областных властей проектировщики и строители приняли все меры, чтобы сделать аэровокзал максимально удобным и безопасным. Они обратил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создание безбарьерной среды, обеспечили доступ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аждан во все помещения для пассажиров. Также на объекте установлена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ая багажная система с пятью уровнями контроля безопасности. Она способна обработать до 1200 багажных мест в час. Также в помещении аэровокзала будут располагаться более 20 предприятий торговли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Уверен, жител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будут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отправляться в полет из нового аэровокзала и возвращаться домой, – сказал Алексей Белик.

В связи с санкциями, введенными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рядом недружеств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потребовалось заменить часть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аэровокзала.

– Мы успешно справились с задачей. И сегодня у нас на объекте большая доля оборудования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частности, системы регистрации, досмотра, обработки багажа. Это отличный опыт не только для нас, но и для других аэропортов России,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эровокзала Игорь Шубейко,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О «Восточные ворота страны».

–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оянно контролировал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эровокзала. И сегодня мы видим объект, достойный нашей области. Это просторный аэровокзал, с удобной навигацией. Здесь будет комфортно и родителям с детьми, и маломобильным гражданам. Важно, что аэровокзал – визитная карточка области. По нему туристы составят первое впечатление о нашем регионе. Теперь оно будет благоприятным, – отметил член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Хапчинин.

Среди волонтеров были и люди, передвигающиеся с помощью инвалидных колясок. Их задача – проверить, насколько помещения аэровокзала приспособлены дл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аждан.

– Меня, если честно, интересовали туалеты. По опыту знаю, что они бывают не очень удобными, а ведь это важно. Но в нашем аэровокзале все понравилось. Отлично сделано. Меня устраивает все. Вот, например, одна мелкая, но очень значимая деталь. Сиденье кресла в зале ожидания совпадает по высоте с сиденьем моей коляски. А значит, удобно перебираться туда и обратно, – поделился наблюдениями волонтер, инвалид первой группы Геннадий Чернышевский.

– Впечатления замечательные. Чем скорее аэровокзал откроется, тем лучше. Молодцы! Сделано все хорошо, удобно. Достаточно места, понятная навигация внутри, есть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указатели, – отметила волонтер Галина Волосович.

Передвижение по территории аэровокзала обеспечивают пять эскалаторов и четыре подъемника, а также 23 лифта. На привокзальной площади оборудована крытая галерея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849 метров. Она укроет пассажиров, провожающих и встречающих от дождя и снега при посадке из автомобилей.

## «ИВА» поможет защитить от пожаров сахалинские леса

Современную информационную систему, аналогов которой ранее не было в регионе, нача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авиабазе, подведомственной островному агентству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Программа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е видеонаблюдение и аналитика» («ИВА») позволяет в круглосуточном режиме молниенос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лесной пожар в любой точке области.

Всего в регионе установлено 24 камеры. Они закреплены на антенно-мачтовых сооружениях, высота которых 25–40 метров. При этом каждая мачта стоит на природной возвышенности, что позволяет камере мониторить обстановку в радиусе более 30 км. Камерой можно управлять и в ручном режиме – поворачивать на 360 градусов, увеличивать изображение. 14 устройств установлены на разных участ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трассы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Есть мачты и по дороге в Охотское, возле сел Восточное, Горное, Такое и друг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благодаря этой системе мы реже будем сталкиваться с фактами поджогов. Ведь картинку с камер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установки лиц, виновных в возникновении пожаров,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охраны лесов от пожаров и защиты лесов областного агентства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Олеся Карабакина.

Изображение в режиме реального времени передается на «видеостену» – мониторы диспетчерского пункта. При обнаружении малейшего задымления в лесном массиве, система фиксирует координаты, передает сигнал лесным пожарным и другим ответственным ведомствам, рассчитывает кратчайший путь до ближайшей лесопожарной станции, анализирует, какие средства и силы понадобятся для тушения, составляет прогноз, по какому сценарию может развиваться пожар в конкретных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ях.

Кроме «ИВА», есть у разработки и второй блок – «Ясень». Он позволяет оперативно составлять отчетность по каждому событию, хранит и анализирует данные обо всех лесных пожарах, которые был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за последние 15 лет.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 발간

재외공관, 민주평통 해외지역협의회 등에 배포 예정

통일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책자를 발간한다고 7월 7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영문판 보고서는 국내외 주요기관에 1,500부를 배포한다.

먼저 재외공관·주한 외국공관·주한 국제기구, NGO 등에 약 900부, 국내외 인권단체 및 인권·안보 연구소 등에 약 150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외교부·민주평통 해외 지역협의회 등 정부기관에도 약 450부를 배포해 해외 각지에 북한인권상황을 알리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누리집(www.unikorea.go.kr)에도 게시됐다. 추후 영문판에 대한 관계 기관 등의 수요가 있을 경우 책자를 추가 제작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 발간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해외에도 확산해 북한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재청, 중앙아시아 고려인 초청해 한국 무형유산 전수

7월 3~22일 우즈베크·카자흐 고려인 19명 대상으로 '재외동포 무형유산 초청연수' 진행  
7월 22일 전북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결과발표회 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썬마루 공연장에서 중앙아시아 고려인동포를 대상으로 운영한 '재외동포 무형유산 초청연수'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무형유산 초청연수'는 재외동포 교류협력 사업의 하나로 2014년부터 시작됐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고려인 예술단 지도자에게 직접 우리 무형유산을 교육해 현지에서 다시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7월 3일부터 22일까지 국가무형문화재 농악 전승자 최호인·송하중 씨와 살풀이춤 전승자 공민선·이동숙 씨가 강사로 참여해 우즈베키스탄 중앙 고려인문화협회 소속 예술단 6명과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소속 4개 지역 예술단 지도자 13명 등 총 1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초청연수에서는 무형유산에 대한 고려인 예술단 지



2022 무형유산 카자흐스탄 현지교육 결과 발표 공연 모습 (사진 문화재청)

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무형문화재 이해와 전승의 필요성',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의 이해' 등 두 과목을 신규 개설해 운영했다.

22일 열리는 결과발표회에서는 이번 교육 중목인 농악과 살풀이춤뿐만 아니라 지난해 교육 과정에서 운영됐던 국가무형문화재 태평무와 학연화대합설무,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전통 무용 공연이 펼쳐진다. 이 공연에는 안산과 인천 등 국내 고려인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이 관람객으로 초청돼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결과발표회는 관람을 희망하는 누구나 현장 접수를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0-1462)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중앙아시아의 고려인협회와 문화교류 및 지원에 앞장설 것이며, 고려인 후세대들에게 무형유산이 전승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국물 요리 순두부찌개

순두부 특유의 담백하고 보드라운 질감은 다른 식재료에선 쉽게 느낄 수 없는 특별한 맛이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건장식으로 먹고, 맵고 얼큰하게 끓여 해장음식으로 즐기기도 한다. 지금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맛있게 즐기는 메뉴로 자리 잡았다.

순두부찌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와 함께 한국의 대표 찌개 요리다. 고춧가루로 얼큰한 맛을 낸 국물에 순두부를 넣고 달걀을 깨 넣어 보글보글 끓여 먹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때 달걀은 각자 기호에 따라 빼기도 하고, 달걀 대신 해산물을 넣어 시원한 풍미를 살리기도 한다.

순두부 자체는 거의 '무맛'에 가까울 정도로 순하고 담백하다. 질감이 보드랍고 연해서 입 안에 넣었을 때 씹을 것도 없이 목젖을 타고 넘어가는데, 얼핏 푸딩의 질감과도 비슷하다. 백옥처럼 하얗고 부드러운 순두부를 얼큰한 국물에 넣고 팔팔 끓여 냈으니 담백하고 매운, 정반대의 두 맛이 한데 어우러져 매력적인 국물 요리가 완성되는 것이다.

### 지역별로 먹는 방식이 다른 순두부찌개

같은 순두부찌개라도 지역별로 끓이는 방식이나 먹는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 서울은 얼큰한 국물에 순두부와 달걀, 바지락 등을 넣고 끓여 먹는다면 매운 음식을 즐기는 경상도 지역 사람들은 기름에 대파와 고춧가루를 넣고 달달 볶아 매운 고추기름을 먼저 낸 후 여기에 육수와 순두부를 넣고 끓이는 방식이다. 고추기름 때문에 국물이 훨씬 맵고 강렬하다. 특히 예부터 얼큰한 해장국 문화가 발달한 대구 지역은 고추기름을 베이스로 다양한 국물 요리를 만들어 먹는 방식이 보편화됐는데, 이들에게 순두부찌개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젓갈을 즐겨 먹는 전라도 지역은 새우젓으로 맛을 낸다. 이곳의 순두부찌개는 애호박과 새우젓으로 짭짤한 감칠맛을 살린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충청도는 짜글이 문화가 발달했다. '짜글이'는 볶음요리와 찌개의 중간쯤 되는 음식으로 국물을 졸이듯이 걸쭉하게 끓여 밥 위에 올려 먹는 요리다. 순두부찌개 역시 짜글이 형태로 국물 양을 적게 넣어 졸이듯이 끓인 후 밥 위에 올려 먹거나 비벼 먹는다.

### 다양한 조화로 해외에서도 인기

순두부는 질감과 맛이 뛰어나 자극적이지 않기에 다른 부재료와 균형을 잘 이룬다는 것이 강점이다. 순두부찌개에 해산물을 넣으면 해물 순두부찌개, 소고기를 넣으면 소고기 순두부찌개, 바지락을 넣으면 바지락 순두부찌개, 굴을 넣으면 굴 순두부찌개가 된다. 담백하면서 매력적인 순두부가 탄탄한 기본기가 돼주니, 여기에 어떠한 부재료를 넣어든 각각의 맛과 개성을 잘 살린 스페셜 찌개가 되는 것이다. 순두부찌개는 한국 고유의 음식을 넘어 해외 각국에서 즐겨 먹는 음식으로도 부상 중이다. 미국에서 인기 있는 대표적인 한식 브랜드가 바로 북창동순두부가 아닌가! 2005년 『뉴욕타임스』에선 한국의 순두

부찌개를 '매운 육수에 비단처럼 부드러운 순두부, 그리고 파와 소고기, 아삭아삭한 김치를 곁들인 순두부찌개는 가장 이상적인 겨울 음식'이라고 소개한 적도 있다. 미국, 캐나다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자완무시(부드러운 일본식 달걀찜)와 식감이 비슷해 인기가 좋다.

### 대표 건강식

순두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두부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다. 콩물을 끓이다가 간수(소금으로 내린 물)를 넣고 휘저으면 어느 순간 콩의 단백질이 몽글몽글하게 응고되며 덩어리째 엉기고 뭉쳐지기 시작하는데 그 단계에서 웃물과 함께 떠낸 것이 순두부다. 여기서 떠내지 않고 응고제를 넣어 단단하게 굳히면 두부가 된다. 별다른 재료 없이 오직 콩과 간수만으로 만들기 때문에 맛있는 순두부를 완성하는 절대적인 조건은 품질 좋은 콩과 간수다.

순두부의 핵심 재료인 콩은 한국에서 '밭의 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콩에 함유돼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일종인 이소플라본은 고혈압,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 항암에도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순두부의 단백질은 필수아미노산을 풍부하게 갖고 있어 소화가 잘되고, 배부르게 먹어도 거부감이 없다.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손색없다.

### 맑은 순두부의 본고장, 초당마을

다양하게 조리한 순두부찌개가 있지만, 양념 없이 순두부 자체를 담백하게 즐기는 이들도 있다. 뜨끈하게 데운 순두부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하면 순두부 본연의 고소함이 은은하게 돈다. 맑은 순두부를 판매하는 식당들은 매장에서 순두부를 직접 만드는 경우가 많다. 맑은 순두부의 본고장은 강원도 강릉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강릉 안에서도 '초당마을'은 특히 순두부가 맛있기로 유명하다. 비옥한 강원도 땅에서 자란 콩과 인근 동해의 깨끗한 바닷물로 간을 맞춰 순두부를 만들기 때문에 더욱 고소하고 콩의 질감이 살아있다. 일반 순두부 제품보다 결이 좀 더 투박하고 거친 듯하지만, 한국인들은 강릉 스타일의 순두부가 제대로 만들어진 진짜 순두부라며 선호한다.

강릉 초당마을이 순두부 본고장으로 이름을 알린 데는 16세기 조선시대 중기 문장가이자 관료였던 허엽(Heo Yeop 許擘, 1517~1580)이 강릉에서 부사(지방 관아에서 실무를 맡아 처리하는 일종의 지방장관직)로 있을 당시 관청 앞마당에 있던 샘물의 맛을 보곤 물맛이 좋다고 여겨 샘물과 동해 바닷물로 두부를 만든 것이 시초라고 한다. '초당두부', '초당마을'이라는 이름 역시 허엽의 호인 '초당(草堂)'에서 따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강릉 초당마을에 가면 순두부의 본고장답게 강릉식 정통 순두부를 맛볼 수 있는 곳들이 많다. 이 초당 순두부가 하나의 고유 브랜드가 되어 현재는 순두부를 이용한 순두부 아이스크림이나 순두부 젤라토 등을 팔기도 한다.

### 이색 순두부 맛집



주로 빨간 양념을 한 순두부찌개가 많지만, 강원도 강릉 초당마을에서는 별다른 양념 없이 순두부 자체를 담백하게 즐기기도 한다.

한국엔 이 순두부를 활용한 다양한 이색 메뉴를 판매하는 식당들이 많다. 강원도 강릉의 '동화가든'은 매운 짬뽕에 순두부를 넣어 '원조짬뽕순두부'라는 대표 메뉴를 판매한다. 짬뽕은 중국 요리 중 하나인데, 동화가든은 짬뽕을 한국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얼큰한 국물에 순두부를 추가해 완전한 한국식 짬뽕으로 구현했다. 여기에 푸짐한 해산물 토피는 덤이다. 이 집은 전국 맛집으로도 유명해 매일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입장이 가능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하다.

'강릉 순두부 장칼국수'는 식당은 상호에서도 알 수 있듯 순두부가 들어간 칼국수를 주력 판매하는 곳이다. 이곳의 순두부 장칼국수는 한국의 전통 발효장인 된장과 고추장을 베이스로 한 얼큰한 국물에 납작하게 썬 칼국수와 순두부, 애호박, 표고버섯 등을 넣고 끓인 메뉴다. 뱃속까지 뜨끈해지는 칼칼하고 깊은 국물 맛이 일품이다. 처음엔 칼국수면을 먼저 건져 먹고 난 후 국물에 소복하게 담겨있는 몽글몽글한 순두부를 장국물과 함께 떠먹는 것이 이 집의 료이다.

서울에도 순두부찌개를 다채롭게 내는 식당들이 많다. '오판 식당'은 돼지고기를 잘게 간 민찌와 순두부를 넣고 끓인 민찌 순두부찌개를 선보인다. 서울 '거북이식당'은 돼지고기 BBQ 전문점인데, 사이드 메뉴로 판매하는 돼지고기 순두부찌개가 특히 별미다. 이 집의 돼지고기순두부찌개는 한국식 전골 스타일로 3~4인용 큼직한 전골용 냄비에 돼지고기와 순두부를 가득 담아 즉석에서 보글보글 끓여가며 먹는 요리다.

순두부 자체는 굉장히 단조롭고 정적인 음식이지만, 이것이 찌개가 됐을 땐 뜨겁고, 맵고, 또 화끈해진다. 생동감이 살아난다. 정적이지만 강인한 맛. 화려하진 않지만, 본질에 충실한 맛. 순두부찌개는 어쩌면 가장 한국적인 맛일지도 모른다.

황해원(Hwang Hae-won 黃海媛) 월간외식경영 편집장 (코리아나 계간지, 2023년 여름)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또한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영화 상영회에 참석하고, 페이스 페인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레크레이션 및 보드 게임을 즐기고, 점토로 작업해보고 색 모래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이번 축제 '창의적 토요일'은 문화와 창의적인 이벤트 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치, 사랑, 충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가정의 힘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함께 하는 시간이 주는 영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сахалин 주 미술박물관 관장 대행 이완 치르크코브가 강조했다.

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뮤지컬 커버 밴드 "나 드네"의 공연이었다. 아티스트들은 방문객들이 춤을 추며 즐길 수 있는 현대 음악들을 들려주었다.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Творческая суббот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 минувших выходных состоялся фестиваль «Творческая суббота». Го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насладились интерактивной программой, включающей кукольный театр, выставки, игры, квест и мастер-классы. Событие объединило более 1,2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Подробности о мероприяти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юных гостей и их родителей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который прошел 8 июля, организовали интерактивную программу с кукольным театром, книжными выставками, фотозоной, игрой, квестом и мастер-классами, приуроченными ко Дню семьи.

На мероприятии также выступили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сво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работы выставили сахалинские художники. Гости смогли насладиться искусством, оценить талант артистов через их произведения. Кроме того, все пришедшие на праздник

могли посетить кинопоказы,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ой аквагрима, поиграть в настольные и настольные игры, полепить из глины и нарисовать картины с помощью цветного песка.

«Фестиваль „Творческая суббота“ не только стал праздником культуры и творчества, но и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ей, любви и верности. Он позволил участникам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илу семьи и вдохновение, которые могут приносить творчество и совместное времяпрепровождение», — отмет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ди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Иван Чирков.

Яркую точку в завершении фестиваля поставила музыкальная кавер-группа «На дне». Артисты исполнили современные композиции, под которые гости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танцевали.

##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온 관광객이 선정한 сахалин의 최고 관광 명소는 어디인가

노보시비르스크에 거주하는 한 여행객이 сахалин을 방문하고 추천하는 관광 명소 목록을 작성했다. 해당 자료는 Ngs.ru에 게시되었다.

시베리아 여성은 갑자기 сахалин의 도시를 탐험하기로 결정하고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흠스크, 네웰스크, 코르사코프를 방문했다. 섬에서 가장 놀랐던 점으로 꼽히는 것들은 일본과 한국 상품이 많이 있고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차량이 많은 것과 음식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었다.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서는 지역 역사 박물관 방문을 추천했다. 이 관광객은 레이아웃, 특이한 지붕, 입구의 동상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박물관에서 сахалин의 역사와 자연에 대해 배울 것이 많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여성은 체호프 센터, 미술관, 도시 공원, 고르니 워즈드호를 방문 장소로 꼽았다. 시내 출구 근처의 대관람차에서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그녀는 또한 흠스크를 방문하여 언덕을 돌아다니며 약마의 다리를 방문하고 항구와 그곳에 기항하는 배를 감상하는

코스루 추천했다.

코르사코프에서는 프리모르스키 대로에 있는 전망대에서 항구를 바라보고, 지역사 박물관에 가서 1929년에 지어진 페허가 된 은행 건물을 본 것에 대해 전했다.

마지막 목적지는 네웰스크였다. 그곳에서 바다사자 투어를 떠났다. 그녀는 네웰스크에서 긴 귀 바다표범에 대한 경건한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 Туристка из Новосибирска составила ТОП мест для посеще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Жительница Новосибирска побывала на Сахалине и составила своеобразный ТОП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которые она посоветовала посетить туристам. Материал опубликовал портал Ngs.ru.

Сибирячка неожиданно предпочла изучить города Сахалина, и потому побыва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Холмске, Невельске и в Корсакове. Больше всего на островах ее удивило обилие японских и 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ов, праворульные машины и цены на продукт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на посоветовала посетить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Больше всего туристку впечатлила его планировка, необычная крыша и статуи у входа. Также она отметила, что в музее можно много узнать об истории и природе Сахалина. Кроме того, женщина перечислила Чехов-центр,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городской парк и «Горный воздух», как места для посещения. С колеса обозрения возле торгового центра на выезде из города, по ее словам, открывается красивый вид на город.

Также она посетила Холмск, где погуляла по сопкам, посоветовала съездить на Чертов мост и полюбоваться портом и заходящими в него судами.

Рассказала про смотровую площадку на Приморском бульваре в Корсакове, откуда наблюдала за портом, сходила в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посмотрела на разрушенное здание банка, построенного в 1929 году.

Последним пунктом ее маршрута стал Невельск, где туристка побывала на экскурсии к сивучам. Ее впечатлило в Невельске трепетное отношение к ушастым тюленям.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01 руб. 0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